

#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에 대한 보고서

## -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예진 회원, 김용균재단 상임활동가

태안화력발전소 앞에 서면 기이한 기분이 든다. 엄청나게 큰 건물과 높이 솟은 굴뚝들, 그런 것처럼 짙게 뿜어져 나오는 연기. 추모제를 위한 방문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나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저 거대한 발전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어쩌서 수많은 노동자를 집어삼키고도 이리 고요하게 돌아갈까. 그리고 발전소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떤 마음일까.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사망사고 이후, 태안화력발전소 한전 KPS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전 조합원을 만났고, 그들의 노동과 안전, 고용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단계 하청구조 가장 아래에 있는 2차 하청노동자는 위험 작업을 강요받고 철저히 통제됐다. 또 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더해진 고용불안에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 성취와 책임감을 지우는 구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한전KPS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28일, 3년 3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고 전부 승소했는데, 실태조사 당시에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불법파견 소송 이후 현장은 달라졌다. 한전KPS 정규직과 하청 비정규직이 짝을 이뤄 작업하던 이전과 달리 업무를 구분 짓기 시작했다. 이걸 우리, 저건 너희. 하나로 이어진 업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게 원활할 리 없었다. 하청노동자는 위험한 일, 부수적인 일을 떠맡으며 주변화됐다.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가 강조됐고,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할 서류도 일도 늘었다.

이를 두고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물론 일방적으로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불합리한 일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함께 ‘일하는’ 것 같았다. 발전소 구조를 익히고, 설비를 알아가며 일의 재미를 느끼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불법과 권의 흔적을 지우려는 한전KPS에 의해 하청노동자는 성취감, ‘일’을 빼앗겼다. 그러면서도 관계를 이용해 부차적인 일을 넘겼다. 이야기를 나눴던 노동자들은 우리 팀 정규직 노동자와는 “친하다”고 강조했다. 섞여서 일하고, 같이 밥을 먹고, 퇴근 후에는 술 한 잔 나누는 동료였다. 업무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을 때, 한 노동자는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질차상 안 되는 건 맞는데, 비유하자면 옆에 사람이 쓰러졌는데 구급차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냐고, 심폐소생술이라도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같이 일하는 발전 노동자로서 어떻게 보고만 있겠냐”고.

하청노동자의 책임감, 현장의 관계가 철저히 이용되는 구조였다. 사실 이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했던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함께 일하면 되는데 말이다.



▲태안화력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2025.08.)

## 터전을 빼앗는 발전소 폐쇄

한편에는 불안감과 막막함이 지배적으로 깔려 있었다. 발전소 폐쇄는 다가오고 일자리 대안은 없다. 그래도 계획은 있는지 물어 물으면 ‘예전에는’ 자격증 준비도 하고, 이것도 고민했다고 답했다. 현재는 대부분 고민만 남아 있었다. 부모님이 아파서, 주말마다 농사를 도와야 해서, 자녀들이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나이가 들어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월급이 줄어드니까.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나도 많아서 태안과 발전소를 벗어나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다. 폐쇄 이후를 두려워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아득해졌다. 이걸 ‘일자리 폐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당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였다. 정말 ‘삶’이었다.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발전소 폐쇄가 ‘삶’을, 이들의 터전을 무너뜨린다는 걸 실감하게 됐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구조적 피해를 겪고 있어서, 이제는 이곳만의 특별한, 자극적인 무언가가 없으면 주목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비록 그렇다고 해도, 그 뒤에 사람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본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의 마음을 담아, 불법과 권 중단하라! 위협의 외주화 중단하라! 발전 노동자 충고용 보장하라! 